

2016년 10월 7일 오늘은 묵주 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과 우리 수도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78년 동안 인류를 위한 빠스또렐레의 현존에 대해 성부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며 친교 안에 우리 서로 일치기를 이룹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쇠신된 신앙의 여정을 통해 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선한 목자의 발자취를 재인식하며 신앙 안에서 자매요 생명력 있는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수도회 설립 30주년 때에 하신 축하 인사이지만 오늘 모든 빠스또렐레에게 여전히 힘을 주는 그 인사를 다시 듣고 마음에 새깁시다. “말이 아니라 정신, 의지, 마음, 삶,의 일치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 마리아께 일치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마음 안에 지니고, 삶 안에 지니고, 친밀한 시간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분과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수도회 안에서 생각, 의지, 활동, 감정의 일치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지상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일치를 이루셨고 영원 안에서 지속하고 일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수도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느끼십시오.” (AAP, 1968, 821). 제 9차 총회 준비 가운데 모든 분들께 저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수도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글을 보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벗들과 은인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기도와 사랑 안에 함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모성적 얼굴인 모든 빠스또렐레 여러분 축일 축하합니다.

*Sr Marta Finotelli*

총장